



김국영

한국 간판 스프린터 김국영 다시 뛴다

7월 세계육상선수권·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정조준
유럽서 두 달간 전훈...5~6개 대회 참가 포인트 적립
여자허들 1인자 정혜림도 진천선수촌 입촌 AG 준비

한국 간판 스프린터 광주시청 김국영(31)이 2022시즌 스타트를 끊는다. 김국영은 오는 9일 독일로 출국, 유럽에서 2개월여간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독일 등 유럽에서 열리는 실내대회 등 5~6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겨우내 몸을 만들고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실전에 나섰던 예년과 달리 1월부터 실전에 나서는 것은 오는 7월 2022오리건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9월 2022항저우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다. 김국영이 이번 유럽 전훈기간 중 참가하는 대회는 실내에서 열리는 60m대회다.

100m를 주력으로 뛰는 김국영이 60m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랭킹 포인트 획득을 위해서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기준기록(10초05)을 통과하거나 랭킹 포인트를 쌓아 출전권을 획득해야 출전할 수 있다. 김국영의 목표는 한국신기록을 넘어 9초대 돌파다. 기록에 도전하면서 포인트를 쌓아간다는 계획이다. 스타트가 빠른 김국영이기에 60m 대회에서는 유럽선수들과 겨뤄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국영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할 당시 '스타트부터 30m까지는 9초대를 뛰는 선수들과 차이가 없다'

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스타트 반응이 매우 빠르다. 홀로 독일로 출국하는 김국영은 며칠 후 유럽에서 전훈에 나서는 필드종목 국가대표팀과 합류해 훈련을 함께 할 예정이다. 김국영은 대구(2011년), 모스크바(2013년), 베이징(2015년), 런던(2017년), 도하(2019년) 등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5차례 출전했고, 올해 6번째 출전에 도전한다. 김국영은 지난 2017년 런던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한국 트랙 종목 사상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100m 최초로 올림픽 기준기록(당시에는 10초16)을 통과하며 본선행에 성공한 한국 간판 스프린터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외에 항저우아시안게임도 준비한다. 아시안게임은 별도의 기준기록은 없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 한다. 여느 해 같

면 6월경 엔트리를 확정하는데 대한육상연맹은 올해 4월경 아시안게임 엔트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국영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며 4월 대표선발전에 나서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국영의 최고기록은 한국신기록인 10초07이다. 지난해는 2021고성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준결승에서 10초08(2.9%)을 기록하며 한국신기록에 육박하기도 했다. 풍속 초과로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감을 쌓은 김국영은 올해 다시 한번 기록에 도전한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은 스타트가 좋기에 60m 대회에서 해볼 만할 것"이라며 "기록에 도전하면서 랭킹포인트도 쌓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여자 허들 1인자 광주시청 정혜림도 5일 진천선수촌에 입촌, 아시안게임 준비에 돌입했다. /최진화 기자

프로야구 FA시장 총액 989억 마감

유례없는 돈잔치 15명 전원 계약
KIA 나성범 역대 최고액 150억

올겨울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유례없는 돈 잔치 속에 막을 내렸다. 5일 마지막 FA로 남아 있던 정훈이 원소속 팀 롯데 자이언츠와 3년 총액 18억원에 계약하며 이번 FA 시장에서 나온 선수 15명이 모두 소속팀을 찾았다. FA 시장 개장 후 40일 동안 쏟아진 돈은 무려 989억원(음선 포함)에 달했다. 상징적인 수치인 1,000억원에는 약간 못미쳤지만, FA 최대 계약 총액 신기록을 넘겨주며 작성했다. 이전까지 FA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간 해는 2016년으로 766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당시와 비교해 프로야구 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2년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프로야구는 출범 이래 최악의 위기와 마주했다. 입장료 수입과 광고 판매가 급감했고 선수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른 데 이어 2020 도쿄올림픽 노메달, 송우현의 음주운전 적발로 프로야구는 위기를 자초했다. 운영난을 반영하듯 구단마다 긴축 재정에

나섰다. 선수단 숫자부터 줄었다. 10월 이후에만 36명의 선수가 방출 통보를 받았다. 아무리 이번 FA 시장에 거물급 외야수 매물이 대거 쏟아졌다고 해도 대박 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급 돈 잔치가 벌어졌다. 최초 계약자였던 최재훈(한화 이글스·5년 54억원)을 시작으로 해를 넘겨 도장을 찍은 정훈까지 15명이 989억원을 합작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계약이 유독 많이 쏟아져 나왔다. NC 다이노스 박건우(6년 100억원), LG 트윈스 김현수(4+2년 115억원), 두산 베어스 김재환(4년 115억원), KIA 타이거즈 나성범(6년 150억원), KIA 양현종(4년 103억원) 등 총 5명의 선수가 '10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최근 수년간 하위권을 맴돌던 KIA가 명가 부활을 기치로 '큰손'으로 나섰다. 여기에 NC와 LG도 적극적인 외부 FA 영입에 나서면서 스포츠계에 기쁨을 부었다. 한화는 성적 향상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팬들의 반발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운영난 속에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다. 수많은 이야기거리로 남긴 FA 시장을 마무리한 10개 구단은 이제 스프링캠프 준비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류현진, 제주도서 20일까지 '미니 캠프'

장민재·이태양 등 동행
볼펜 피칭 등 투구 훈련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년 연속 제주도서 '미니 캠프'를 차린다. 류현진 측 관계자는 5일 "류현진이 한화 이글스 시절 함께 뛰 후배들과 6일부터 제주도서 귀포시 강창학야구장 등에서 20일까지 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류현진의 토론토 전담 트레이너로 일한 장세홍 트레이너, 장민재, 김기탁(이상 한화), 이태양(SSG 랜더스)이 류현진과 동행한다. 류현진은 지난해 10월 9일 귀국해 짧은 휴식을 취한 뒤, 김광수 전 한화 투수가 운영하는 54K 스포츠에서 훈련했다. 실내에서 가볍게 투구 훈련을 시작한 류현진은 '롱토스' 등을 위해 제주도로 향한다. 류현진은 12월까지 웨이트 트레이닝 등에 집중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투구 훈련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짧은 전지 훈련을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제주도를 훈련 장소로 택했다. 지난해에도 류현진은 1월 7일 제주도로 떠나 1월 21일에 상경했다. 이 기간에 류현진은 캐치볼 거리를 70m까지 늘리고, 가벼운 볼펜 피칭도 했다.



류현진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훈련 일정을 짰다. 류현진은 21일 서울로 올라와 미국프로야구 노사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 출국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현진은 2021년 14승 10패 평균자책점 4.37을 올렸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시절이던 2013~2014년, 2019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이자 토론토에서는 처음으로 시즌 최다승인 14승을 거두고 아메리칸리그 다승 공동 2위로 2021년을 마감했지만, 다른 지표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입성 후 최다인 10패를 당했고, 평균자책점도 어깨 부상으로 한 경기만 던진 2015년(11.57)을 제외하고는 가장 나빴다. 홈런도 개인 한 시즌 최다인 24개를 내뿜었다. 최근 미국 CBS스포츠는 베리오스와 가우스먼을 토론토 원투펀치로 지목했다. 류현진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법한 평가다. 하지만 류현진은 '저평가' 받을 때마다 반등에 성공했다. 손조롭게 '서울 실내 훈련'을 마친 류현진이 제주도서 어깨를 예열한다. /연합뉴스



5일 충북 진천선수촌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들 베이징동계올림픽 선전 다짐

G-30 미디어데이 행사
"목표 금메달은 1~2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어두운 성적 전망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5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한체육회가 밝힌 선수단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대표팀 김보름(강원도청)은 "선수들은 모두 개인 목표를 세우고 대회에 임한다"라며 "대한체육회에서 설정한 목표는 선수 개개인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의 리더 김선영(강릉시청)도 "대한체육회가 예상 금메달 개수를 적게 잡았다고 우리가 메달을 못 따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부담감이 줄었다. 실망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메달획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목표를 "금메달 1~2개"라고 발표했다. 여자종목 쇼트트랙 대표팀이 각종 내홍과 주력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이 급감한데다, 스켈레톤 등 평창올림픽 금메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1~2개, 종합 15위"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올림픽 선수단장을 맡게 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은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쇼트트랙 '말똥' 괄옥기(고양시청)는 "여자 1,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과 남자 500m

황대현, 남자 계주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은 "월드컵 대회 출전 이후 자가격리를 해서 선수단의 컨디션은 떨어져 있지만, 남은 기간 잘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는데, 꼭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고 다짐했다. 컬링 김선영은 "평창올림픽에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차근차근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5일 현재 3개 종목 5개 세부 경기에서 32명이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체육회는 이날 말까지 출전권을 추가로 확보해 6개 종목 약 60명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올림픽은 2월 4일 개막한다. /연합뉴스

광주FC 베테랑 수비수 안영규 영입

K리그 통산 195경기 출장

광주FC는 수비수 안영규(32)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 U-18 금호고 출신 안영규는 통산 195경기(K리그 1 97경기)를 뛴 베테랑이다. 탄탄한 대인마크와 헤더, 커버 플레이가 뛰어나며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로 빌

드임에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다.

2012년 수원삼성에서 데뷔했고 일본 2부 기라반츠 기타큐슈(임대), 대전시티즌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에서 뛰었다. 2018시즌 당시 광주에서 주장 완장을 차며 팀을 이끌기도 했다. 군복무 후에는 성남FC에서 활약했다. 3년 만에 다시 광주 유니폼을 입게 된 안



안영규

영규는 "광주 팬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려 기쁘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면서 "고집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년부터 더 솔선수범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